

RAONATTI 4 , IN VIETNAM REPORT



START

**2010,
10.01 - 10.31**



베트남에서의 10월

MON	TUE	WED	TUR	FRI	SAT	SUN
				1	2 싱가포르 Y Cultural Night	3
4 베트남 친구들과 '짜조' 음식 요리	5	6 싱가포르 Y Cultural Night	7 한달 점거 파티 + 칭찬 파티	8	9 베트남 약혼식	10 호치민 구경 오페라극장+방직+시청 +전생박물관+벤티안시장 w/ 중,고연,기연,준
11	12 YMCA 근처 시장 방문	13 중과 고연으로부터 베트남 전통모자 선물 받음	14 베트남 오리 도전! 반세오 받음!	15 호치민 대학 축제	16 한국음식요리! w/ 베트남친구들 메뉴 *김자전 *김치찌개 *간장게란반	17 베트남 결혼식?!!
18 동나이 유치원 봉사활동 시작!				21	22	24 나연이 생일 축 축
25 쿠엔's 대학 졸업식	26	27	28	29	30 D-100 귀국 0-100일 소소한 파티!	31

~~THE STORY IS...~~

DONGNAI 유치원 FIRST PROJECT!!!



드디어 동나이 흥안 유치원에 처음 간 날이었어요. 베트남팀은 다른 팀들과는 달리 프로젝트를 늦게 시작하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더 긴장되고 떨렸던 것 같아요. 1달동안 열심히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배웠던 우리지만 더 부족한 점은 없는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나이와 호치민과의 거리가 상당히 때문에 '소진'의 위험성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 간 날은 주룩과 베트남 YMCA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반도 배정 받고 나의 반에 들어가게 되었죠. 선생님들도 처음 보고 아이들도 처음 보고 서로서로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인사했을 때 긴장이 딱 풀렸던 것 같아요. 베트남 아이들도 우리나라 아이들과 같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고 점심은 너무 맛있었고 왜 걱정했나 싶을 정도로 즐거웠던 것 같아요. 웬지 이제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거 같은 예감이 확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동나이 흥안 유치원과 함께 지내게 될 나날이 시작되었어요.

첫 PROJECT를 시작한지 얼마 안된, 그들의 이야기

나연: 동나이 활동 시작 이후로, 유치원 아이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언어장벽을 더 느끼게 되었어요. 답답하죠. 선생님들과는 의사소통이 조금은 되는데,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이제 3주차 활동에 접어들면서 간단한 것들은 알아듣긴 하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대화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없게 되니까 말이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그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 저도 선생님들이 일하기에 편하게 할 수 있는 도우미는 되는 것은 같은데, 아이들 교육이나 아이들 생각 하면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국 동요 "종이 비행기" 노래를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아이들과 함께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VU VU VU VU may bay bay ~ ♪♪

정잔: 처음에는 동나이 유치원 재미있었는데, 지금 생각은... 잘못하면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유치원에서 걸레질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9주를 보내는 동안 시간을 버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회의감이 갑자기 드는 달이었어요. 이 곳에 우리가 무엇을 하러 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월에는 어떻게 생각이 변할지 궁금해요.

정훈: 저 또한 단순노동이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어가 쉽게 늘지 않아서, 열심히 해야겠다.. 하다가도 좌절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어서 고맙습니다. 유치원에 있는 시간이 언어에 대한 장벽을 빨리 허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진: 우리 다같이 고민을 했었잖아요. 더 잘 들렸으면 좋겠다. 수업을 진행해보고 싶다. 아이들이 자꾸 무시하고 힘들게 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잖아요. 몇 일 전에 저희 반 선생님과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얘기를 듣지도 않고, 무시워하지도 않아서 답답해요. 나의 역할을 무엇이고 무엇을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은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밝게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가면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이 말을 들은 이후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이들이 떠들면 더 떠들라고 동요하기도 하고...

은빈: 아, 그런데 저희 반은 손이 참 많이 모자라서, 함께 놀아주는 선생님의 역할로 끝낼 수가 없어요. 진짜 선생님이로 온 기본이예요. 세 명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나누어서 밥을 먹이는데 제가 먹이는 아이들은 늘 찢절매곤 해요. 저의 입장에서 눈치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엄하게 대하고 싶지만, 먹이지 않아요. 그래서 속상해요. 저는 유치원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그렇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할거예요!

정잔: 선생님들이 악역을 하는 거고.. 우리들은 그냥 잘 놀다 가면 될 것 같아.

하나: 정진오빠와 은빈이의 생각이 잘 조율이 되면 참 좋은 선생님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HAPPY BIRTHDAY PARTY !!



이 날은 드디어 나연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연이의 생일이었어요. 사실 나연이가 9월에 왔을 때부터 자기 생일 때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등을 많이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연이 생일이 나도 모르게 기다려 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연이 생일에 아침에 가서 정훈오빠랑 장을 봤어요.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너서 갔죠. 케이크도 사고 점심 먹을 거도 같이 사고 사실 중간에 자전거가 펑크나서 걷기도 하고 4시간의 대장정이었어요. 그렇게 와서 같이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맛있게 먹구 나연이의 생일파티를 했어요. 케이크에 불 붙이고 포도 샴페인과 과일과 함께 먹었어요. 그러면서 즐겁게 얘기하면서 보냈어요. 나연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어요. 외국에서 생일을 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일 일수도 있지만 조금 외로운 일 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요. 그래서 더 특별하고 재밌게 보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연이가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서 저도 좋았어요. 내년 나연이의 생일도 같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WAR MUSEUM

플리처상 수상작들을 3품이나 볼 수 있었던 전쟁기념관, 월남전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했던 나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하고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의 나라로 불려지는 베트남에서, 강물에 고엽제라는 독성 물질을 흘려 보내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타났고, 전쟁이라는 참혹했던 상황 속에서 짙은 핏물로 물들어졌던 베트남. 그게 바로 1975년, 대략 35년 전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베트남의 승리로 전쟁이 종결되었고, 그 이후 다음과 같은 말이 생겨났습니다.

*"This is not a jungle war,
but a struggle for freedom on every
front of human activity"*





▲ ▼ IN HOCHIMINH CITY

Vietnam Culture (결혼식, 호치민 대학 축제, 대학교 졸업식)

베트남 결혼식 문화

이건 알고 가자!!!

베트남에서의 결혼식은 중요한 세 가지의 행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랑이 여러 개의 선물을 들고 신부의 집으로 가서 허락을 받는 의식,

두 번째, 일주일 뒤에 신랑이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는 의식,

마지막으로 결혼식을 올리는데, 결혼식 또한 교회에서의 결혼식을 마치고 그 이후에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웨딩 파티까지.

결혼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중하고 특별하게 여기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_~*



그런 결혼식에 우연히 초대를 받을 기회가 생긴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 오기 전까지 베트남 전통 결혼식을 눈 앞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첫 번째 의식이었습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가 신부의 부모님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의식을 하기 위해서 30명이 넘는 신랑측의 측근들이 동원되었습니다.

3시간 가량 버스를 타고 신부의 고향에 도착. 7명의 미혼의 남자들이 각기 다른 선물을 가지고 신랑의 뒤를 따르는 모습은 마치 한국의 "힘" 문화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의식을 하는 동안, 신부측 가족의 눈물 가득 맺힌 눈을 보면서 어느 부모든 자식을 보내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신부 측 친구들과 함께 찰칵*



진 오빠의 귀여운 V



예쁘게 차려 입고 멋지게 사진 한방 찰칵*



신랑 측 식구들과 함께 찰칵*

베트남 친구, 쩐 (Trinh)의 초대



김치찌개



감자전



계란밥

우리 팀의 베트남어 선생님이었던 쩐(대학생,21)이 우리 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혼자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 쩐을 위해 우리는 한국음식을 간단하게나마 준비하기로 했다. 메뉴는 김치찌개, 감자전, 계란밥. 한국마트에서 김치와 재료를 사고, 베트남 마트에도 들러 재료를 샀다. 호텔로 우리를 데리러 온 쩐과 그 친구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쩐네집으로 갔다. 요리 시작! 맛있게 올려 퍼지는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 지지지 감자전 익는 소리... 마침내 준비된 음식을 다 함께 먹고 베트남 친구들은 응연(맛있다)이라는 말을 연발했다. 이렇게 친구가 되는 거겠지? 베트남 대학생의 자취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던 기회여서 정말 좋았고, 베트남 친구들과 함께 먹어서 그런지 그날 한국음식은 더욱 맛있었다.



우리만의 PARTY !

이번 한달을 정리하면서..

와우! 이 날은 내가 10월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특별했던 날이기도 하고요. 사진이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요.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이 날의 기억이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사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날은 우리가 베트남에 온지 딱 한달 쯤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파티를 하기로 했죠. 과자와 음료수도 사고 불은 끄고 은은한 전등만 켜놓고 말이에요. 우선 다 같이 한달 마무리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각자가 느낀 베트남에 대해서 이야기 했죠. 항상 하루가 끝나고 피드백을 하는 우리라서 서로에 생각에 대해 많이 알고 있

었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생각들이 나와서 놀랐었어요. 서로가 느낀 베트남에 대해 이야기 하나까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왔죠. 그리고 난 후에 진실게임을 했어요. 서로서로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 했어요. 예를 들면, 왜 베트남에 왔냐, 요새 느끼는 생각은 뭐냐, 베트남에 와보니까 어떠냐, 앞으로의 목표는 뭐냐 등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팀원들의 생각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한 팀원씩 돌아가면서 다 같이 칭찬해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팀원에 대해서 이때까지 느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팀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베트남팀에서 나는 어떤 존재 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었던 팀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더 진솔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생각하면 미소 지을 수 있을 만큼 행복했던 날이었어요. 처음으로 나 혼자가 아니라 팀원들과 다 함께 베트남에 와서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원래 한 달에 한번씩 이렇게 파티를 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또 11월 달의 파티가 기대가 돼요.



LAST STORY...

10월 인터뷰

이번 한 달을 되돌아보며.



안녕하세요~ 10월을 되돌아봅시다!

정훈: 10월은.....저에게 있어서 10월은 익숙해지는 달이었죠. 생활 자체가 많이 익숙해지고, 그만큼 익숙해지면서 좋아지는 점은 편해졌었고, 나쁜 점은 너무 편해져서 아무 고민이 들지 않는 것이예요^^

은반: 저는 몸이 아파서 편하게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10월에 유독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쉬면 그만이지만 팀원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혼자 쉬는 것이 많이 눈치가 보이고 마음 편히 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팀끼리 오니까, 아픈 것도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계속 건강관리를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동나이 가기 전에는 건강이 나쁘니까 건강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라면, 동나이를 가고 나서는, 아무래도 일적인 부분? 언어 장벽에서 오는 문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몸이 피곤한 것도 저를 힘들게 하는 한 부분이었어요. (하나: 반대로 저는 오히려 팀원으로 왔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팀원들이 메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았어요 ^^*)

정훈: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다른 기수들과의 비교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1~3기 선배들과의 비교 말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비교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힘들었던 것은 피로함? 그래서 피곤할 때는 욕심 안 부리고 일찍 잤던 것 같아요. 저번 달에 피곤해했던 팀원들간의 관계에 있어서 포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더 양보하고 배려하고, 마음을 많이 놓았어요.

정잔: 저는 1. 팀워크, 2. 라온아피 본질에 대한 회의감. 왜냐하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정적인 고민이라기 보다는 의문점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 결론을 내리진 못했어요. 팀워크에 대한 것은, 안 좋다, 좋다가 아니라, 군대에서 '군대장'이라는 것을 1년 동안 했었는데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정말 힘든 것이라는 느꼈어요. 단체 생활은 인내와 양보를 수반해야 하는데, 제가 그만큼 인내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나연: 저도 진 오빠처럼 라온아피에 본질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베트남에 온 건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잘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 같아요. 그리고 저는 유치원 활동을 하면서 나태함과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 한계가 저를 나태하고 무기력해지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나 언어의 장벽이란 한계에 부딪혀서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다간 얻는 것도 없겠다 싶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나: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라온아피에 대한 본질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었어요.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냥 지금 일에 정신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

10월 달 주제를 시작으로 잡았잖아요, 시작이 어땠던 것 같나요?

우리의 "시작"의 의미는?

정찬: 저는 베트남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불안정한 상태에서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들!! 합기도 라던지, 매일 가던 음식점에 가지 않고 새로운 음식점에 대해 도전하는 것도...

동나이 프로젝트 이후에 정말 바쁜 나날들을 보냈는데, 앞으로 남은 3개월도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정훈: 시간 진짜 빨리 가지.

잔: 진짜 어느새 홍콩 공항에 있을 것 같아.

나연, 하나: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귀국 D-100일이 지난 이후로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나연: 저 또한 베트남에 대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참 행복해요. 모두에게 얘기 했듯이, 요즘 너무 행복해요!! 처음 느껴본 감정이라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이 해답을 찾기 위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었어요.

베트남 너무 좋고, 많이 좋아졌어요. 다른 곳, 새로운 곳에 가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도전하는 자세, 자신감이 생겨난 것 같아요.

정말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이 말이 생각나는 군요. 저의 '시작'은 마음을 열기 !!!!

정훈: 아참, 저는 10월에는 동나이도 시작하고, 합기도도 시작했었어요!

은반: 저도 마찬가지로 동나이 유치원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프로젝트이고 다른 팀들에 비해서 프로젝트를 늦게 시작해서 엄청 걱정이 많았던 것만큼, 떨렸었는데.

첫날에 가서 보니.. 걱정이 날아갔죠. 시작하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새로운 시작에 벌써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시작을 찾아 나갈 생각이예요. 10월만이 시작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시작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 저의 시작..... 음, 10월은 고민의 시작이었어요. 처음 9월에는 적응하고 익숙하고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다면, 10월에는.. 라온아피 라던지,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 이라던지, 그렇게 국내훈련 때 받았던 교육 내용들과 세미나의 내용들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1월 달의 목표가 있다면?

정훈: 11월 달 안에, 버스에서 만난 사람과 함께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이예요. (나연: 저도요)

정찬: 이번 한 달 동안 새로운 사람 50명 만나는 것이 목표!!

나연: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베트남어 공부+영어공부 열심히 할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고민과 생각들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11월이 되도록 노력 할거예요!

은반: 아이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워크캠프에 가서 영어실력을 늘리고 싱가포르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어요!

하나: '라온아피'의 색깔을 찾는 것입니다. 활동가로써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나아가고 싶어요. 언어 소통도 잘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To be continued...